

공공도서관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관장들의 인식 분석

- 각국 도서관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Directors' Perceptions of Ethical Dilemmas: Focused on National Professional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장 효 정 (Hyo-Jeong Jang)*

정 철 (Chul Jung)**

이 용 재 (Yong-Jae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도서관 관장 FGI 분석 |
| 2. 도서관인 윤리강령의 의의 | 5. 결 론 |
| 3. 국내외 도서관인 윤리강령 토픽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인 윤리강령의 윤리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도서관 관장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IFLA에 등록된 44개국의 도서관인 윤리강령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LDA)을 수행한 결과, 국내외 도서관인 윤리강령의 주요 윤리적 가치는 사서의 윤리적 가치와 도덕성, 정책 및 의견 조율, 기관 및 인적 자원 관리, 구성원 역할 수행, 의무 및 규정 준수, 조직 관리, 정보 공개 및 저작권 보호로 도출되었다. 이후 수행된 공공도서관 관장들과의 FGI에서 정보 접근성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치적 중립성 유지, 유료 정보 서비스 도입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thical values presented in library codes of ethics in Korea and abroad and analyzes public library directors' perceptions of ethical dilemmas based on these values. By performing topic modeling on the codes of ethics from 44 countries registered with IFLA,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key ethical values: librarians' ethical values and morality, policy and opinion coordination, institutiona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role fulfillment of members, compliance with duties and regulations, organizational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subsequent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ublic library directors, participants reported experiencing ethical dilemmas in areas such as ensur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protecting privacy,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and addressing issues of fairness in the introduction of paid information services.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장, 윤리적 딜레마, 도서관인 윤리선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Public Library, Library Director, Ethical Dilemma,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Focus Group Interview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박사수료(pollus3@naver.com / ISNI 0000 0005 0724 3096)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박사수료(feday0000@pusan.ac.kr / ISNI 0000 0005 0660 9447)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yj5384@pusan.ac.kr / ISNI 0000 0004 6472 844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1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645-670,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1.64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위기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단순히 정보 제공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그들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와 전문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SLA) 등은 매년 콘퍼런스와 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접근성(Accessibility)과 같은 4가지 가치를 사서의 윤리적 핵심 가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22). 반면,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지적 자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정 단체가 금서 목록을 만들어 도서관 자료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요구하고, 일부 도서관에서는 상위 기관의 명령이나 민원인의 요구로 자료 선정을 제한하는 등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 선언』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윤리적 딜레마란 조직 내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한 행동이 올바른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국립국어원, 2024)으

로 정의되는데, Vallotton Preisig et al.(2014)은 정보가 생성되고 조직되며, 저장되고 배포되어 소비되는 모든 곳에서 윤리적 갈등과 윤리적 딜레마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Miltenoff & Hauptman(2005)에 따르면 세계무역센터가 파괴된 후 플로리다의 한 사서는 FBI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후 그 사서는 일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서는 침묵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보 제공 행동이 이용자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 사회와 인류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을 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애국법(Patriot Act)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논평 기사에 응답해 작성된 두 편의 기고문(Letter librarians)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American Libraries의 편집자인 Kniffel(2004)은 애국법이 미국인의 지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사서들이 이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Lewis(2004)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위선적인 주장에 질렸다”며 도서관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미래의 비극을 예방할 기회를 잃는 것은 도리어 범죄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고 동시에 사서들은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해 여론의 시험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도서관 윤리 강령』은 사서들에게 올바른 의사 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도서

관인 윤리강령의 주요 윤리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도서관 관장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다룬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중요한 논제이며 이는 도서관의 공적 역할과 사서의 전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도서관 관장들의 인식과 이를 반영한 도서관 윤리강령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사서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와 '윤리적 딜레마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도서관 윤리강령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선 사서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보 접근권, 지식 재산권, 개인 정보 보호, 직업적 책무와 개인적 신념 간 갈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정보 검열과 같은 외부적 제약과 사서의 전문적 판단 간 충돌은 윤리적 딜레마의 핵심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Hanell et al.(2024)은 지난 10년간 스웨덴 공공도서관에 나타난 정치적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스웨덴 정치 지형의 변화는 도서관의 자기검열 등 장기적으로 도서관 실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역 도서관 정책을 넘어 도서관법 및 국가 문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014년

시행된 스웨덴 도서관법(Bibliotekslag, SFS 2013:801)은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책임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우선순위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 연구 결과, 지난 10년간 스웨덴에서 사회적 분열과 적대적 정치 담론의 확산으로 인해 사서들은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환경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었다.

Hazelton-Boyle과 Hazelton-Boyle(2023)은 '공공도서관 사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포스트 진실 시대의 도덕적 상처'를 통해 포스트 진실(post-truth) 시대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치적 문제와 같은 사안들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도덕적 상처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서들의 동기(motivation)에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einsfelde(2014)는 학술 참고 사서(the Academic Reference Librarian)가 전자책 제공 과정에서 상충하는 가치로 인해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사서들은 비소속 이용자(non-affiliated users) 지원 문제, 지적 재산권 존중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 간의 갈등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며 도서관의 장기적 역할 간 균형을 모색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한다.

국내 연구로 정진수(2021)는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탐색하고, 사례에 기반하여 윤리적 딜레마의 특성을 밝히고 그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에서 사서교사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주로 정보 접근 제한, 직업적 책무와 전문성 간의 갈등, 지식 재산권 존중과 이용자 권리 간의 균형 문제, 학교 내 도서관 운영 방식과 교육 시스템 간의 불일치, 그리고 사서교사 전문성 함양과 학교가 기대하는 역할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또한 타 관중 도서관 사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서관인 윤리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현주(2016)는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어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관장급 사서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사서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도서관 윤리강령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서들의 전문적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Hansson(2016)은 윤리강령이 사서직의 전문적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Hansson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윤리강령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윤리적 핵심 가치를 도

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서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실천적 과제를 탐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사서들의 윤리적 고민과 실천적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Ferguson et al.(2016)는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이하 LIS) 전문가들이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조사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영향,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자료, 그리고 사례 연구가 윤리적 이해와 의사결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LIS 전문가, 교육자, 전문 기관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딜레마 유형을 식별하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LIS 전문가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윤리 강령이 현재와 미래의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LIS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려운 윤리적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Foster와 McMenemy(2012)는 36개 국가 사서 협회의 윤리강령을 분석하여, 사서들이 전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가 존재하는지와 정치적·문화적 맥락이 윤리강령 내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의 8가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윤리강령의 가치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윤리강령은 평균적으로 8가지 중 5가지를 포함했으며, 서비스, 프라이버시, 접근 평등, 책임, 지적 자유가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 이에 반해 합리성은 가장 적게 포함되었으며, 특정 윤

리강령은 고유한 초점으로 인해 일부 가치를 생략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도서관인 윤리강령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차원에서 논문의 소결 부분에 주로 선언적 수준에서 강령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윤리강령을 기초로 한 최근 국내 학술연구는 김지현(2014)의 연구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서 실무자들의 업무와 인식의 근간이 되는 전문직 가치를 논의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회 윤리강령을 분석하였다. 세 분야의 윤리강령을 13개의 공통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도서관에서는 지적 자유 기능이 고유하면서도 강조되는 윤리적 측면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실제 업무에서 이러한 가치의 적용과 인식을 조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와 맥락을 함께한다.

국외에서 윤리강령의 실천 방안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관련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여러 핵심 가치를 제시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는 사서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강령이 담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진하다. 이러한 국내 연구의 부족은 단순히 학문적 공백에 그치지 않고, 사서들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직업적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 윤리강령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에 등록된 44개국 윤리강령을 대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국내외 도서관인 윤리강령에 내포된 윤리적 가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앞서 LDA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관장들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진행하여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도서관 관장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책임자이자 윤리강령 적용의 주체인 관장급 사서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직면하는 주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장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도서관인 윤리강령의 의의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서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데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 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강령의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등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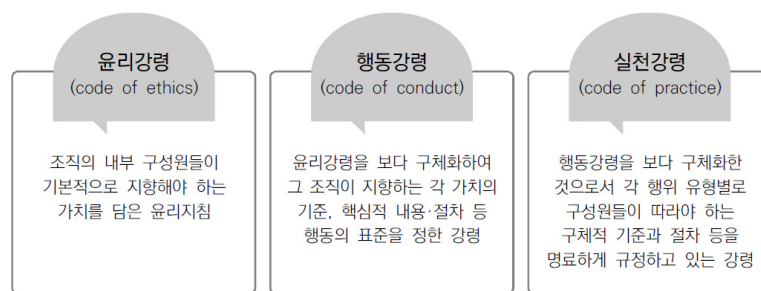
IFLA는 ‘도서관 및 정보 종사자를 위한 윤리강령’의 서문에서 사서 및 정보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때 원칙에 대해 숙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윤리강령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즉 도서관 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같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서들을 위한 윤리강령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직업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직업 활동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6년 제47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서직 윤리헌장” 제정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식에서 선포되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¹⁾은 1997년 10월 30일 제정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1997). 이후 도서관현장의 전문직 윤리에 대한 각성과 실천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제안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개정을 당면과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2월 28일 개정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1997년 제정 강령은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임, 전문성, 봉사 정신 등 포괄적 가치를 강조한 반면, 2019년 개정 강령은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보호, 지식재산권 존중 등을 추가하며 세분화된 윤리적 쟁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97년과 2019년 도서관 윤리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997년과 2019년 도서관 윤리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도서관인 윤리강령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서들이 도서관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림 1>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타난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유형화

1) 한국도서관협회는 1997년에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영문으로 ‘Code of Ethics’로 표기된다. 이러한 명명은 ‘도서관인 윤리선언’ 서문에 밝힌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자율적 윤리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선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문으로는 ‘Code of Ethics’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1997년과 2019년 도서관인 윤리선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1997년 10월 30일 제정 내용	2019년 2월 28일 개정 내용
공통점	사회적 책임 및 공익성 강조	'민주적 사회발전 기여'와 '모든 국민에 대한 헌신'이 포함	'이용자 차별 금지' 및 '정보접근 보장'
	전문성 및 자기개발	'전문지식에 정통' 및 '자아성장'을 통해 전문성 강조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및 응용 노력'을 명시
	이용자 중심 윤리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도	'이용자 권리 보호'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로 이용자 중심 윤리를 강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	공익기관 종사자로서의 품위 견지	'개인적 관심보다 도서관 발전 우선'
차이점	포괄적 사회적 차별 금지	사회적 책무를 일반적으로 서술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정보접근과 검열 반대	지식자원을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간접 배제	'자신의 편견 배제 및 검열 반대'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검열 문제를 구체화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관련 언급 없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적극 보호'를 추가
	지식재산권 존중	관련 언급 없음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 추가
	협력의 구체성 변화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력 강조	협력보다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 개인적 관심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시하는 점을 강조

록 돕는다. 특히 정보의 접근성과 공정성,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같이 상충될 수 있는 가치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둘째, 전문직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기술적 기능을 넘어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사서들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셋째, 사서들과 이용자 간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서들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동시에 자신의 직업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은 사서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인 윤리강령은 직업적 판단과 행동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국내외 도서관인 윤리강령 토픽 분석

3.1 분석 대상 및 분석 과정

IFLA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도서관인 윤리강령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IFLA, n.d.). IFLA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강령이 제시되는 국가는 모두 63개국이었으며 이 중 19개국의 윤리강령은 링크가 유실되었거나,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문 확인이 가능한 44개국의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직업적 본질, 개인적 이익 배제,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개발, 품위 유지, 상호협력, 사회나 국가에 대한 임무, 봉사 대상자에 대한 임무와

업무 수행 방식 등의 내용을 10개 조항 이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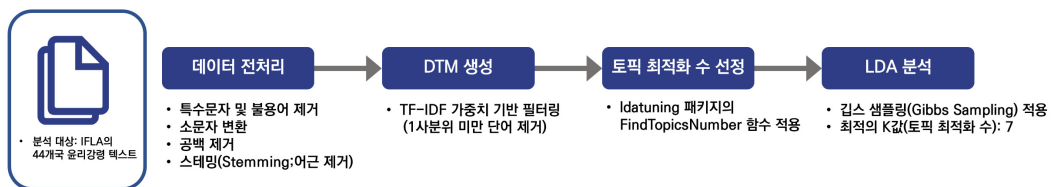
국내의 도서관인 윤리강령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주요 윤리적 가치를 추출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원문 확인이 가능한 44개국 윤리강령을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LDA는 Blei et al.(2003)이 제안한 모델로, 문헌이 여러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정하여 '문헌에 대한 토픽 분포'와 '토픽에 대한 단어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잠재 토픽을 식별한다. 즉 문헌 내에 잠재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생성 확률 모델로, 특정 문헌 집합에서 중요한 토픽을 식별하고, 각 토픽에 가장 관련이 깊은 단어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영어로 작성되었거나 영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국가의 윤리강령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데이터의 전처리 및 LDA 분석은 R(4.3.2 버전: Eye Holes)에서 수행하였으며, 분석 과정에 대한 도식화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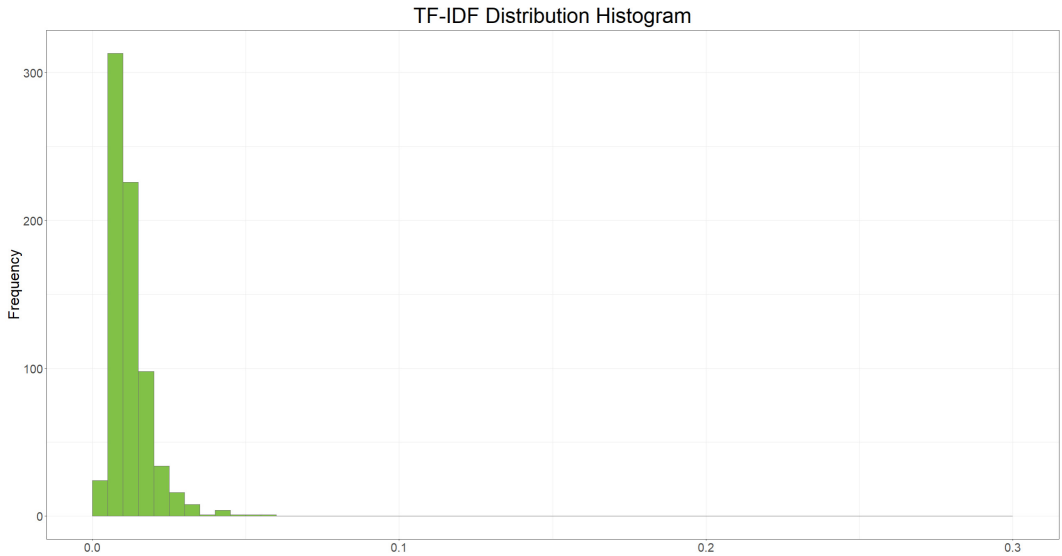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텍스트의 불용어 및 어근 제거(stemming) 등을 통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DTM(Document-Term Matrix: 문헌-단어 행렬)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생성된 DTM에 대하여 TF-IDF 값을 산출하였으며, 44개국 텍스트에 대한 DTM의 TF-IDF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TF-IDF는 단어빈도(TF,



<그림 2> 사서 윤리강령에 대한 LDA 분석 대상 국가



<그림 3> LDA 분석 과정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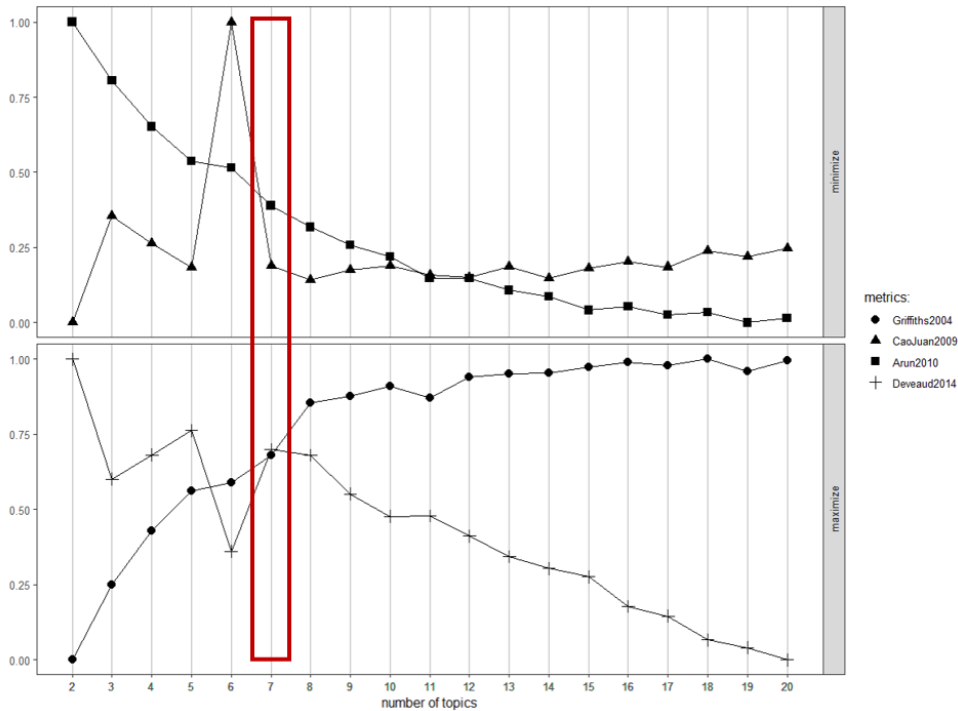
〈그림 4〉 TF-IDF 값 분포

Term Frequency)와 문서빈도의 역수(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TF-IDF 값은 문서 내에서 키워드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희귀)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Manning et al., 2008; 박대서, 김화중, 2018). 본 분석에서는 데이터 규모를 축소하고 단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TF-IDF 분포에서 1 사분위 수(0.007896689) 미만의 단어를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DTM을 LDA 분석에 활용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에 있어 토픽의 수는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기에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이에 ldatuning 패키지의 FindTopicsNumber 함수를 활용하여 토픽 최적화 수(K)를 산출하였다. FindTopicsNumber 함수는 지정한 범위 내에서 토픽 수를 점차 증가시키며 LDA 모델을 훈련하고, 4가지 지표(Griffiths2004, CaoJuan2009, Arun2010, Deveaud

2014)를 바탕으로 모델을 평가하여 토픽 수에 따른 지표 값을 반환한다(CRAN R project, 2022). 토픽 최적화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토픽 수를 2부터 20까지 1을 간격으로 증가시켜 LDA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토픽 수에 따른 4가지 지표의 결과값은 〈그림 5〉와 같다.

다음 그림에서 Griffiths2004와 Deveaud2014는 각각 토픽 수에 따른 LDA의 로그 우도와 토픽 분포의 개별성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모델 적합도가 높다(Griffiths & Steyvers, 2004; Deveaud et al., 2014). 한편 CaoJuan2009와 Arun2010는 토픽 간의 상관관계와 모델의 일관성을 뜻하며, 값이 작을수록 모델 적합도가 높다(Cao et al., 2009; Arun et al., 2010). 이에 결과적으로 Griffiths2004와 Deveaud2014 값이 높으면서, CaoJuan2009와 Arun2010 값이 낮은 지점인 7이 토픽 최적화 수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내의 도서관인 윤리강령의 주요 윤



〈그림 5〉 토픽 최적화 수의 선정(K=7)

리적 가치가 7가지의 토픽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토픽의 수를 7로 설정하여 LDA 분석을 수행하여 각국의 도서관인 윤리강령에 대한 토픽을 도출하였다.

3.2 분석 결과

LDA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픽별 확률값(Probability) 상위 10개 단어를 도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토픽별 확률값 상위에 포함된 단어를 중심으로 각 토픽의 의미와 내포된 윤리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opic 1은 사서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지침을 다루며, 'ethic', 'code', 'moral' 등의 키워드는 윤

리강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Topic 2는 도서관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사서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다루며, 'polici', 'opinion', 'request' 등의 키워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Topic 3은 사서의 근무 환경과 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institut', 'resourc', 'employ' 등의 키워드는 도서관 자원 및 전문성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넷째, Topic 4는 도서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member', 'role', 'staff' 등의 키워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Topic 5는 사서의 규정 및 의무 준수를 다루며, 'shall', 'must', 'conduct' 등의 키워드는 행동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섯째, Topic 6은 도서관 관리와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librarian',

〈표 2〉 토픽별 상위 키워드 10개

토픽		단어(확률값)
Topic 1	윤리 및 도덕성 (Ethics and Morality)	ethic(0.0614) , code(0.0581), promot(0.0428), toward(0.0362), document(0.0351), may(0.0319), human(0.0308), guarante(0.0242), moral(0.0209) , consid(0.0198)
Topic 2	정책 및 의견 (Policies and Opinions)	everi(0.0320), hisher(0.0287), sourc(0.0287), polici(0.0254) , within(0.0254), accord(0.0254), train(0.0243), request(0.0243), opinion(0.0221) , present(0.0221)
Topic 3	기관 및 인적 자원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institut(0.0940) , resourc(0.0589) , work(0.0331), employ(0.0331) , care(0.0290), qualiti(0.0269), highest(0.0207), posit(0.0197), high(0.0187), concern(0.0176)
Topic 4	구성원 및 역할 (Members and Roles)	materi(0.0630), code(0.0420), need(0.0410), will(0.0378), member(0.0305) , aim(0.0263), establish(0.0211), role(0.0200) , staff(0.0200), effort(0.0148)
Topic 5	의무 및 규정 (Duties and Regulations)	shall(0.0678) , must(0.0417) , conduct(0.0400), practic(0.0374), act(0.0313), member(0.0296), oblig(0.0279) , requir(0.0252), enhanc(0.0200), council(0.0192)
Topic 6	관리 및 조직 (Management and Organization)	librarian(0.4673), author(0.0246), organ(0.0246) , govern(0.0200) , assist(0.0147), time(0.0139), except(0.0100), gain(0.0100), religion(0.0100), process(0.0100)
Topic 7	정보 공개 및 저작권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pyright)	ensure(0.0505), support(0.0475), work(0.0372), open(0.0310) , commit(0.0258), data(0.0258) , properti(0.0248), copyright(0.0227) , fair(0.0217), promot(0.0197)

‘organ’, ‘govern’ 등의 키워드는 관리 업무 수행과 조직 발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Topic 7은 정보 접근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다루며, ‘ensure’, ‘copyright’, ‘data’ 등의 키워드는 정보의 투명성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4. 도서관 관장 FGI 분석

4.1 FGI 면담 설계 및 분석 방법

IFLA가 제공하는 각국 윤리강령 현황의 LD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지를 작성하였으며 FGI를 진행하기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 관장들

에게 본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 대상은 공공도서관 관장급 사서들로 다양한 규모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사서들로 선정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기타 지역의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 최소 2~3명의 관장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다. 표집의 기준으로 우선 공공도서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최소 3년 이상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인 윤리 문제나 정책 관련 토론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

하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 포함되도록 샘플을 구성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각 지역 공공도서관 협회 및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이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4명의 관장들을 선정하였으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FGI 초청 및 일정 조율하였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하여 <표 3>과 같이 FGI 진행하였으며, FGI 참여자 정보는 <표 4>와 같다.

FGI 참여자들은 도서관 운영과 정보 서비스 제공에서 관장급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평균 근무 경력은 FGI 실시 기준 32년 4개월이다. 이들은 현재 도서관 운영 책임자이자 윤리강령을 실무에 적용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FGI 면담 내용은 본 연구의 질문과 선행 연구 및 LDA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서관인 윤리강령의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FGI 이전 작성한 초안 코드북을 토대로 FGI 일부 완료 후 초기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참여

자 발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코드나 예상과 다른 주제를 반영하여 코드북을 보완하였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표 5>와 같이 최종 코드북을 작성하여 코드 구조 확정 및 일관된 데이터 코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면담 간에 나타난 유사한 견해들을 모아 범주화하고 의견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추가 보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사이의 코딩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의 기반 코딩(Consensus Coding)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코딩 단계에서 세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코딩한 후, 코드 불일치 사례에 대해 심층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모든 불일치 코드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코드북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종 분석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표 3> FGI 진행 내용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1월 3일 19시 - 21시
진행방법	온라인 ZOOM을 통한 FGI
진행 시간	2시간
참여자	공공도서관 관장 4명

<표 4> FGI 참여자 정보

참여자	소속기관(현)	직급(현)	경력		
			사서	관장	합산 경력
P1	도서관사업소	사서 5급	12년	16년	28년
P2	대표도서관	사서 4급	13년	17년	30년
P3	문화재단	3급	24년 10개월	11년 10개월	36년 8개월
P4	광역시립도서관	사서 5급	32년	3년	35년

〈표 5〉 최종 코드북

	주요 코드	세부코드	코드정의
1	윤리 및 도덕성	사서의 역할 인식 및 도서관 내 협력과 소통 문화	사서가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는 정도와 부서 간 소통 문제
		사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현실적 보호 장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2	정책 및 의견	도서관의 수서와 대출 등의 정책 수립 과정 참여	사서들이 도서관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정보의 접근성 제한과 검열 활동	
3	기관 및 인적 자원	사서 구성원들의 세대 차이	업무 방식, 기술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에 대한 사서의 세대별 갈등
		인적 자원 배치	도서관 내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 문제
4	구성원 및 역할	도서관의 운영방식과 사서들의 노동 권익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방식과 사서 사이의 갈등
5	의무 및 규정	정보 접근 권리에 관한 도서관 규정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6	관리 및 조직	정부 및 외부 거버넌스 요구 사이의 균형 유지	지방정부 및 외부 거버넌스와 협력 과정에서 도서관의 독립성과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과제
7	정보 공개 및 저작권	이용자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 보호	이용자의 이용 기록의 비공개 유지
		전자 자료 및 온라인 접근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 자료에 대한 접근과 관련 규정과 기준
		정보공개 청구 업무에 대한 대응	도서관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4.2 공공도서관 관장 FGI 내용 분석

4.2.1 윤리 및 도덕성(Ethics and Morality)

사서직의 윤리와 도덕성을 주제로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은 ‘도서관인 윤리강령’이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개선하는 기준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우선 한국도서관협회가 윤리강령에서 ‘사서’가 아닌 ‘도서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도서관이 ‘사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직원’을 포함하고 있기에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라는 특정 직책에 국한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직업윤리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리강령을 도서관인이라고 명명한 범주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관협회의 윤리강령 네이밍이 ‘도서관인 윤리강령’이라고 이야기한 어떤 배경이 있는가도 좀 궁금해졌어요.” (P3)

한편 도서관 내 협력과 소통 문화는 사서 조직의 민주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이용자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도서관은 다양한 부서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이나 부서 간 소통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넓게는 도서관계 전체에서 이러한 문화가 존재하는지 확장하여 고민해 볼 중요한 문제라고도 지적하였다.

“저는 윤리강령에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조직의 문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조직 문화가 정말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서관 철학이 실제로 조직 문화에 반영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해요.” (P3)

또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사서들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정작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나 방어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지적 자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도서관 외부에서 책임자나 수서 담당 사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언이 행동 없이 그저 글로만 남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통해 도서관인들이 지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P4)

“윤리선언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도서관계가 부당함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경기도서관’의 운영 방식에 도서관계가 깃발을 들고 나서 큰 성과를 낸 사례도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오히려 수용적

인 태도가 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윤리 강령에는 잘못된 것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2)

4.2.2 정책 및 의견(Policies and Opinions)

다음으로 도서관 정책과 사서의 개인적 신념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공공 서비스의 공정성과 정보 접근 권리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로 일부 관장은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심층적으로 이용할 때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의 권리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대다수의 관장들은 한국 도서관이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럽이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원을 보다 깊이 활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도서관이 더욱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유료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2)

한편 희망도서 구매는 도서관 운영에서 또 다른 윤리적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희망도서 수서

문제는 장서개발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용자 요구와 공공성 사이의 갈등, 예산 배분의 윤리적 판단, 지적 자유와 검열 이슈 등의 윤리적 딜레마와도 연관된다. 정규 도서의 경우, 도서관에 배치될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희망도서로 들어온 책에 대해선 종종 사서들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희망도서가 들어올 때 거절 기준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사서들은 결국 모든 책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서 도서 선정의 갈등이 사서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 참여한 관장들은 언급하였다.

“책을 구매할 때, 정규 도서는 정말 필요한 책만 구매하는 반면, 희망도서로 들어온 책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구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희망도서를 거절할 때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정말 부적합한 책이 요청되면, 이 책을 도서관에 두는 게 적합한지 고민하게 돼요. 그렇지만 희망도서는 거절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P2)

“저희 지자체 도서관에서는 한 이용자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도서관에서 계속 신청하다 보니,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희망도서로 구매한 책들이 물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걸 정책적으로는 맞지만, 직원들은 계속 이렇게 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P4)

“희망도서 대출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예산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독점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P1)

또한 정보 접근성 제한과 검열 문제도 도서관 정책과 사서의 개인적 신념이 충돌하는 주요 국면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논란이 된 사례는 특정 내용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압력이 도서관의 정보 제공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수호해야 하지만, 시대적 갈등 속에서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며 도서관의 중립성과 역할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 정책상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논란이 되는 주제의 도서 등과 같은 특정 자료를 소장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때 사서 개인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때로는 공공도서관에서 험한 서적,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나 내용상의 민감성을 담은 서적, 자극적인 소재나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서적 등의 배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사서가 직면하는 도서관 수서 정책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서관이 정보의 균형 잡힌 제공과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윤리적 기준과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요즘에 한강 책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 앞에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 앞에서 오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집회하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치워라 그리고 그

책을 아이들을 못 보게 해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연령 제한이 있어서 출판된 게 아니잖아요.” (P2)

“최근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희망도서로 들어왔어요. 한 사서가 그 신청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걸 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결국 샀는데, 그 후 그 책을 대출한 사람이 진보 매체 기자였어요. 극진보주의자였던 그 사람이 책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사서들은 도서관 수서 정책이 자기의 도덕적 신념에 맞지 않으면 고민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윤리 선언이나 지적 자유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P2)

“최근에 연구 자료에서 부드러운 검열이라는 용어를 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예 이 책은 사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하고 배제하거나, 서가에서 발견하면 따로 빼서 관리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 수집부터 배제, 서가에 있는 책을 뽑아내는 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국, 이걸 관리자 문제라기보다는 자료실에 있는 수서 담당 사서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P4)

4.2.3 기관 및 인적 자원(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기관의 목표가 자원 분배 및 고용 관행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충돌할 때 겪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서관 내부 직원 분담 문제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논의이다. 관장들은 내부 직무 분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개선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

고 있었으며, 이 문제는 직원들이 맡게 되는 업무의 균등한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특히 관장들은 업무 분배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MZ세대 사서와 시니어 사서들 간의 업무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각 직급에 따른 업무 분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특정 그룹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업무 분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행정적으로 뭔가 일이 떨어지면 마감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세대에게 그 부담이 많이 전가되는 경향이 최근에는 더 커졌어요.” (P2)

“도서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 분담 문제는 MZ세대와 시니어 사서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 야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니어 사서들이예요.” (P3)

“예전 세대는 사명감이나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P1)

추가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봉사 활동 학생 및 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은 종종 본인의 자녀나 친척을 고용하거나 혹은 특정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봉사 활동 기회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이를 압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서들은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간혹 봉사활동 기회의 배분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도 하였다. 아울러 자관의 실습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학연이나 지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기간제 근로자나 대체 인력은 뽑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해요. 가끔 직원 자녀들이 토요일 알바를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P3)

“사서들은 윤리적 이유로 본인 자녀나 친척은 최대한 알바로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특히 간혹 윗분들 자녀들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게 딜레마가 되기도 해요.” (P1)

“문헌정보학과 실습도 사실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커요. 실습생을 교육해야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숫자도 제한적이고, 보통은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교수님들이 연락을 하고 부탁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부분도 윤리적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실습에 대한 체계가 잘 마련되면 좋겠어요.” (P2)

뿐만 아니라 사서의 고용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과 이를 위한 예

산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서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영과 경영 차원에서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예산과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서들의 권리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2.4 구성원 및 역할(Members and Roles)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말 운영 시간 단축과 명절에 도서관을 열어달라는 민원은 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사서들의 노동 권익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사서들은 노동 환경의 변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주말에 문을 닫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는 이에 반대하며 365일 개방을 요구한다. 보존서고 자료 신청 시간 제한 문제도 윤리적 딜레마를 나타내는데 이용자가 책을 필요로 할 때, 시간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서들이 매시간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제안은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사서들의 업무량 증가와 관련된 실무적인 갈등을 초래한다. 이처럼 사서들은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그들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이 많지만, 우리는 주말 운영 시간이 평일보다 짧고, 점점 더 줄여가고 있어요. 사서들은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런 토론회를 열고, 주말에 왜 일해야 하는지, 은행처럼 주말에 문을 닫고 싶다는 의견도 나오죠.” (P1)

“명절에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을 여는데, 도서관은 문을 닫아요. 예전에는 명절에 시간이 여유 있어 문화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언제까지 도서관이 명절에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돼요.” (P3)

“시민들이 계속해서 도서관에 365일 열어달라 명절에도 열어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어요.” (P4)

“도서관에서는 보존서고 책을 주말에는 아예 빌려주지 않고, 평일에는 일정시간에만 신청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존서고 책 신청을 매시간 할 수 있게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노조에서 항의가 심했고, 업무량이 늘어난다며 실무 사서와 갈등이 있었어요.” (P2)

참여자 대부분은 도서관 운영 시간과 사서의 근무 시간이 동일한 문제는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도서관이 운영되는 시간과 사서들의 근무 시간이 일치하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휴식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도서관 규정상 이용자의 요구와 맞물려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직원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도서관 운영 시간과 직원 근무 시간이 같아서 회의를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하거나 일부 도서관은 출근 전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야근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료실에 있는 직원들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정규직만 회의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P3)

대부분의 관장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포함하여 근무 시간과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책 모색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사서들은 도서관의 공공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윤리적 기대는 이용자의 권리와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업무의 부담과 실질적인 조건을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서들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고민이 현재 진행 중이라 하였다.

4.2.5 의무 및 규정 (Duties and Regulations)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지니고 있고 최근 공공도서관은 포용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오늘날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충돌할 때 기관의 권리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규정에 따라 노숙자를 퇴관 조치한 경험을 언급하며, 규정 준수가 불가피했음에도 윤리적 고민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에 노숙자가 도서관에 왔는데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옆에 있는 이용자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경찰을 불렀더라고요. 저는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퇴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경찰에게 퇴관 조치를 인계했어요.” (P4)

노숙자의 도서관 이용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도서관 내에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도서관 자원이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관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정에 따라 퇴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치매 환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도 제기되었다. 범죄자는 고의성이 없었지만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 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규정을 참고하여 입장 제한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세 가지 이유에 기반한 것이었다. 첫째 범죄자의 더 큰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 차원, 둘째 도서관 직원의 보호, 마지막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당 치매 환자가 매일 도서관에 방문하던 이용자들이었기에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고 하였다.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가방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훔쳤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해서 사건이 진행됐죠.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치매 환자였어요. 그때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는데, 저희 도서관에 규정이 없어서 다른 도서관 규정을 참고해 180일 입장 제제를 결정했어요. 이 결정이 정말 고민이었어요.” (P3)

추가적으로 지역의 통합 이용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 자격은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둔 사람,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외국인 등에게 주어지지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들은 이용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연결되며 전국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지역의 통합 이용 규정에서는 이용자 자격이 주어지는 일정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결국 정보 접근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P4)

4.2.6 관리 및 조직(Management and Organization)

도서관에서 지방정부 등 외부 조직을 포함한 거버넌스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할 때 겪는 딜레마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대수의 관장들은 국가 정책이 변화하면 도서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돌봄 선도도시’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에 돌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는 돌봄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산하 공공도서관에는 돌봄 시설을 제공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으며 이때 이 일을 맡은 ‘돌봄 전담사’는 도서관에 시설만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에 많은 갈등과 제도적 혼선을 빚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 변화가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에 미치고 현실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지자체는 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도 돌봄 시설을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결국 돌봄시는 와서 도서관은 그냥 시설만 제공하라는 식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학습방 같은 시설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P1)

도서관은 소속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 속한 정치적 당파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산이 100%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서의 소신만으로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예산 지원 사이에서 외부의 압박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저희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잖아요. 시나 국비로 충당하는데, 이때 ‘지적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기획이나 강사 섭외에도 영향을 미쳐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불려가기도 하고, 그게 도서관 예산과 연결되기도 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요.” (P3)

공공도서관의 행정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서 때로는 개인정보를 넘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하지만, 지방의회로부터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넘어선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고백하였다.

“우리 행정 업무를 견제하는 게 의회인데, 가끔 의회에서 개인정보를 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죠.” (P1)

“우리가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가끔 의원들이 그 정보가 필요하다며 동아리 회원들의 연락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요구는 거절하죠.” (P3)

4.2.7 정보 공개 및 저작권(Information Disclosure and Copyright)

마지막으로 정보의 공개 접근과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서관은 정보의 공개 접근과 이

용자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보 제공과 이용자 사생활 보호 간의 갈등 사례로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도서관 방문 기록이나 대출 내역 열람을 요청하는 상황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생활 보호 원칙과 부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부모님 중에는 자녀가 도서관에 왔는지, 현재 도서관에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14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방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P1)

“몇몇 부모님께서서는 청소년 자녀가 어떤 책을 대출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부모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에서 고민이 되죠.” (P3)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용자들의 정보가 분의 아니게 외부로 제공된 상황은 도서관의 공적 역할과 개인의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얼마 전 OO 경찰청에서 저희 도서관에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해외 금융 범죄 조직이 도서관을 통해 불법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 특정 기간 동안의 서버 접속 기록을 요청했고, 저희는 그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걱정됐어요.” (P1)

결론적으로, 도서관 윤리선언과 관련 지침에서 정보 제공과 사생활 보호 간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자 자료의 온라인 접근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학술지나 전자책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측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단위 도서관의 전자책 구비 부족과 지역별 서비스 혜택 차이, 특정 플랫폼 뷰어에 대한 의존성,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으로 인한 사용 제약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전자책 이용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정보의 공정한 접근과 공유라는 도서관의 역할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단위 도서관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은 전자책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혜택에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P1)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뷰어가 통합되지 않아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책이 제한되기도 해요.” (P2)

“전자책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전자책은 전자책 공급 업체와의 비용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정되어 있어요.” (P4)

“아마존이 유럽에 전자책을 납품할 때 킨들(Kindle)로만 볼 수 있게 했을 때, 유럽의 도서관 협회들이 아마존 전자책 거부 운동을 벌였어요. 이런 행동은 윤리적으로 걸맞거나 계약에 맞서 싸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P3)

마지막으로 사서들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사서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업무 부과로 인식되고 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과잉 대응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침과 사서 대상의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도서 목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민이 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P1)

“연구자들이 10년 치 데이터를 모두 정리해 달라고 하면 전담 인력이 붙어서 2~3일 동안 해야 할 때가 있어서 업무량과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이 됩니다.” (P3)

5. 결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며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관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형식과 내용이 다양화되면서, 도서관 사서들은 정보 제공 및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별 윤리강령에 담긴 공통된 가치를 분석하여, 사서들이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도출하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4개국의 도서관 윤리강령을 분석하고, 공공도서관 관장들과의 심층적인 집단 인터뷰 및 토론을 통해 도서관 현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윤리적 딜레마와 이를 통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사서들이 정보 관리자와 교육자 역할 사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립과 정보 제공의 균형점을 찾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사서들은 도서관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 기회 부족과 부서 간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공식적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세대 간 사서들의 업무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 배치의 불균형이 제기되었다. 세대 통합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인적 자원 재배치

가 요구된다. 넷째,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사서의 노동 환경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 시간과 업무 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사서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 접근권 보장과 이용자 데이터 보안 사이의 갈등이 윤리적 딜레마로 제기되었다. 모든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규정과 대출 기록 비공개 원칙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 및 외부 거버넌스 요구와 도서관 독립성 유지 사이에서 갈등이 빈번하다. 도서관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적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 접근성 제한과 검열 활동이 주요 윤리적 딜레마로 나타났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정보공개 청구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관장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의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제한된 점과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국한될 가능성 등의 근본

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44개국의 도서관 윤리강령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적용되는 가치 차이를 깊이 다루지 못했으며, 일부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의견이 강조되어 정밀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관장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향후 통합적 고찰을 바탕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윤리강령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나 실천강령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후속 연구로 국내외 사서 윤리강령 분석을 통한 사서 전문직 윤리의 공통 구성요소 및 핵심 이슈 도출, 도서관 관장 및 사서와의 FGI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실천강령 제시, 사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한 이슈별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2024). 우리말샘, 윤리적 딜레마.

출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282679&viewType=confirm

국립중앙도서관 (2022). 사서지원서비스, 사서의 직업 가치와 윤리, 그리고 변화하는 자격 요건(미국 동향).

출처: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20200000.do?schFld=0&schStr=%EB%AF%B8%EA%B5%AD+%EB%8F%99%ED%96%A5&schM=view&page=1&ordFld=regdt&ordBy=DESC&viewCount=9&id=42984&schBdcode=&schGroupCode=>

- 국민권익위원회 (2024).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세종: 동위원회.
- 김지현 (2014).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윤리강령 비교 연구: 해외 전문직협회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5-2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4.005>
- 박대서, 김화중 (2018). TF-IDF 기반 키워드 추출에서의 의미적 요소 반영을 위한 결합벡터 제안.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6(2), 1-16. <https://doi.org/10.14801/jkiit.2018.16.2.1>
- 이현주 (2016). 공공도서관 상급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71-97. <https://doi.org/10.16981/kliss.47.1.201603.71>
- 정진수 (2021).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161-180. <http://doi.org/10.4275/KSLIS.2021.55.1.161>
- 한국도서관협회 (1997).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 도서관문화, 38(6), 37-39.
출처: <https://www.kla.kr/viewer/35/files/5437>
- 한국도서관협회 (2019. 2. 28.).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윤리선언.
출처: <https://www.kla.kr/menus/80/contents?menuIds=67,80>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2024).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서울: 동위원회.
- Arun, R., Suresh, V., Madhavan, C., & Murty, M. (2010). On finding the natural number of topics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some observations, 391-402. https://doi.org/10.1007/978-3-642-13657-3_43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Cao, J., Xia, T., Li, J., Zhang, Y., & Tang, S. (2009). A density-based method for adaptive LDA model selection. *Neurocomputing*, 72(7-9), 1775-1781. <http://doi.org/10.1016/j.neucom.2008.06.011>
- CRAN R project (2022). ldatuning: Tuning of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Models Parameters. Available: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ldatuning/ldatuning.pdf>
- Deveaud, R., SanJuan, É., & Bellot, P. (2014). Accurate and effective latent concept modeling for ad hoc information retrieval. *Document Numérique*, 17(1), 61-84. <http://doi.org/10.3166/dn.17.1.61-84>
- Ferguson, S., Thornley, C., & Gibb, F. (2016). Beyond codes of ethics: how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navigate ethical dilemmas in a complex and dynamic information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4), 543-556. <https://doi.org/10.1016/j.ijinfomgt.2016.02.012>
- Foster, C. & McMenemy, D. (2012). Do librarians have a shared set of values? A comparative study of 36 codes of ethics based on Gorman's enduring values. *Journal of Librarianship*

-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49-262. <https://doi.org/10.1177/0961000612448592>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 suppl 1, 5228-5235. <https://doi.org/10.1073/pnas.0307752101>
- Hanell, F., Carlsson, H., Engström, L., & Hansson, J. (2024). Canaries of democracy: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times of political turmoil. *Public Library Quarterly*, 1-25. <https://doi.org/10.1080/01616846.2024.2385741>
- Hansson, J. (2016). The documentality of ethics - codes of library ethics as support of professional practice. *Proceedings from the Document Academy*, 3(1), Article 8. <https://doi.org/10.35492/docam/3/1/8>
- Hazelton-Boyle, J. K., & Hazelton-Boyle, M. J. (2023). Public librarians in the hot seat? moral injury in the Post-Truth era. *Public Integrity*, 1-7. <https://doi.org/10.1080/10999922.2023.2281726>
- IFLA (n.d.). National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by countries. Available: <https://www.ifla.org/national-codes-of-ethics-for-librarians-by-countries/>
- Kniffel, L. (2004, November 4). Letter librarians: of the people, and fiercely for the people, *Wall Street Journal*, 4 November.
- Lewis, J. (2004, November 4) Letter librarians: of the people, and fiercely for the people, *Wall Street Journal*, 4 November.
- Manning, C. D., Raghavan, P., & Schütze, H. (2008).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tenoff, P. & Hauptman, Ro. (2005). Ethical dilemmas in libraries&col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Electronic Library*, 23(6), 664-670. <https://doi.org/10.1108/02640470510635746>
- Reinsfelder, T. L. (2014). E-Books and ethical dilemmas for the academic reference librarian. *The Reference Librarian*, 55(2), 151-162. <https://doi.org/10.1080/02763877.2014.879035>
- Sveriges Riksdags (2013). *Bibliotekslag 2013:801*. Available: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bibliotekslag-2013801_sfs-2013-801/
- Vallotton Preisig, A., Rösch, H., & Stückelberger, C. (2014). Ethical dilemmas in the information society: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archivists. IFLA/FAIFE Satellite Meeting 2014.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publications/misc/ethical-dilemmas-in-the-information-society.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24). 2025 Public officials' code of conduct manual. Sejong: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Chung, Jin Soo (2021). Ethical dilemmas in teacher-librarians' profession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161-180.
<http://doi.org/10.4275/KSLIS.2021.55.1.161>
- Kim, Ji hyun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des of ethics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3), 541-59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4.005>
- Korea Library Association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2024).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Issues in Library.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97).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enactment. *Library Culture*, 38(6), 37-39. Available: <https://www.kla.kr/viewer/35/files/543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9, February 28). Korean Library Association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vailable: <https://www.kla.kr/menus/80/contents?menuIds=67,80>
- Lee, Hyun Joo (2016). The effects of leader's ethical leadership on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s in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71-97. <https://doi.org/10.16981/kliss.47.1.201603.71>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4). Urimal Dictionary, Ethical Dilemma. Available: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282679&viewType=confirm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Librarian Support Services, Professional Values and Ethics of Librarians, and the Evolv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vailable: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202000000.do?schFld=0&schStr=%EB%AF%B8%EA%B5%AD+%EB%8F%99%ED%96%A5&schM=view&page=1&ordFld=regdt&ordBy=DESC&viewCount=9&id=42984&schBdcode=&schGroupCode=>
- Park, Dae Seo & Kim, Hwa Jong (2018). A proposal of join vector for semantic factor reflection in TF-IDF based keyword extractio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16(2), 1-16. <https://doi.org/10.14801/jkiit.2018.16.2.1>